

“천하 향해 오도송을 토해 내리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동안거 대중
한달 장좌불와 이어 가행정진 ‘열기’

“이 자리에 앉아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다지 한 것처럼 안거한 남자들도 좌복위에 앉은 순간 생사를 초월하는 화두 투과를 다짐한다.
 공주 계룡산 장군봉 제석굴에 자리잡은 학림사(鶴林寺) 오등선원(五燈禪院) 숲에 깃든 새들처럼 깨달음을 향한 일념으로 대원 스님(학림사 조실)의 회상에 좌복을 띤 남자는 열 네명.
 동안거에 들며 첫 한달을 24시간 넓지 않고 참선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 율령정진을 했다. 안거 막바지인 요즘은 하루 18시간씩 참선수행을 하는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하고 있다. 저마다의 화두는 계룡산 골짜기 소나무보다 성성하다.
 개원한지 20여년. 공간이 넓지 않

아 다소 불편한 오등선원이지만 안거월마다 일대사를 해결하고자 모이는 남자들의 방부는 끝이 없다.
 대원 스님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수행에 출제가의 구분이 있겠는가. 선원의 윗 층(상선)은 스님들이 아래층(하선)은 재가선객들이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정진에 여념이 없다. 대원 스님 역시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 배고프고 추운 데서 도 닦을 마음이 우러난다’이라며 눈곱만큼의 인정도 웅념하지 않는다.
 올 동안거는 서른 명이 방부를 드렸지만 절반이 ‘중도 탈락’하고, 현재 남은 남자가 열 네명인 것 만 봐도 오등선원의 정진이 얼마나 혹독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오등선원의 선방을 엿보기란 불가능에 가까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남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진하고 있다. 사진: 박봉영 기자

운 일. 그러나 2월 6일 이례적으로 아주 잠깐 문을 열어 주었다. 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두었다가 해제가 되어야 다비식을 거행할 만큼 엄한 것이 선방(禪房)의 규율이니 잠깐의 취재는 ‘가피’였다.
 낮 12시 40분. 점심공양을 마치고 수행중 근육의 경련을 막기 위해 뒷산으로 포행을 떠났던 남자들이 선방으로 모여든다. 딱지딱지 기워진 승복을 입은 스님들의 모습 그 자체로 선기가 느껴진다. 스님들의 눈은 광채로 빛나 마주 볼 수가 없다. 남자들은 보시함, 바느질함, 육주함, 다리미함, 상비약함, 서시함이 있는 대중방에서 요가를 하며 잠시 몸을 풀더니, 들러앉아 간단한 대중공사를 했다. 그런 다음 선방으로 들어갔다. 포행도 운동도 대중공사도 다 수행이었다. 불 흐르듯 조용히 바깥경

계를 다스리는 찰나찰나가 수행이었다. 선방 풍경이 눈에 들어 왔다. 가운데 작은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고, 한쪽 벽면에는 용상방(龍象榜)이 붙어 있다. 수행자를 물에서 으름인 용과 물에서 으름인 코끼리에 비유해 남자들의 소인일과 범행을 적은 것이 용상방이다. 그 밑에는 가사가 즐지어 벽에 걸려 있다.
 남자들이 좌복을 펴고 자세를 잡아 입승 스님의 죽비소리가 ‘딱 딱 딱’ 방안을 채운다. 정적이 감돈다. 오직 바람소리와 수각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뿐이다.
 남자들은 천길 벼랑 끝에 발을 내딛는 구도심으로 ‘한 소식’을 얻기 위해 또 그렇게 ‘새벽 별’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행정진의 일과는 단순하다. 아침 6시 공양을 한 뒤 8시에 선방에

들어와 11시에 나온다. 점심공양을 한 뒤 오후 1시에 들어가 5시에 나온다. 또 저녁 공양 후 저녁 7시에 들어가 새벽 아침 6시에 나온다. 더도 덜도 없다. 오직 화두만 있을뿐이다.
 남자들을 경계하는 대원 스님의 가르침은 발심의 묘약이다. 스님은 남자들이 한철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시로 공부를 점검한다. 매일 새벽 3시면 법상에 올라 줄타동시(伽陀同時, 병아리가 앞에서 날 때에 어미닭이 알을 쪄야 듣는 것)의 소참법문도 빼놓지 않는다. 한달간의 장좌불와로 시작한 오등선원의 동안거. 정월 보름날이 오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눈을 마주했던 ‘새벽 별’에 눈맞춘 남자들이 세상을 향해 오도송을 토해 내길 기대한다.
 공주=김원우 기자

종정 추대 원로회의의 3월 14일

3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계종 종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정추대권을 갖고 있는 원로회의가 추대를 위한 회의 입장을 확정했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3월 14일 회의를 열어 제12대 종정 추대의 건을 다룬 예정이다.
 조계종 종현에는 종정 임기 만료 3개월전까지 종정을 추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동안거 기간중 원로의원 스님들의 산문밖 행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종정 추대를 미뤄왔다.
 현 종정 법전 스님은 2002년 법회에 올랐으며, 다음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봉영 기자

봉축위원회 봉축표어 공모

봉축위원회가 부처님이 이 땅에 나루신 뜻과 의미를 가장 친근하고 명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불기 2551년 봉축표어를 공모한다.
 봉축표어는 △고통 받는 중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알리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을 드러나게 하거나 포교와 관련한 내용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으로, 글자 수 10자 이내로 만들면 된다.
 1인 최대 2개씩 응모할 수 있으며, 2월 15일 오후 6시까지 봉축위원회(02-2011-1745)로 이메일(nhk@buddhism.or.kr)이나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 상금은 30만원.
 2006년 봉축표어는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이었으며, 2005년에는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이었다.
 남동우 기자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크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식의,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성내지않는 마음 부처님
 용정운(www.zentoon.com)

성난 화살들이 내게로 날아오더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성난 화살은 빛나가고 맙니다.
 성내지 않는 마음- 부처님 마음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世상鏡
 불가공모전에서 직접 짓고 부른 ‘나유타’라는 노래로 대상을 받았다.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 됐고 16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왔다.
나유타, 최봉종씨의 ‘희망 숫자’
 최봉종(38)씨는 그 분노와 비관을 극복했다. 교도소에서 찬불가를 듣고 온 영혼을 찬불가에 바친 것이 묘약이었다. 그저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찬불가 합창단을 만들었고 작곡하는 법도 배웠다. 그는 2001년 창작찬
 게 많은 생활이다. 일정한 거처가 없어 인연 닿는 대로 사찰을 옮겨 다니며 몇 주일 혹은 몇 달씩 잡자리를 해결해야 한다. 50여 편의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음반을 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결혼은 더욱 생각 못할 ‘판 세상’의 이야기다.
 ‘나유타’는 무한대 이상으로 큰 숫자의 개념이다. 최봉종씨는 나유타라는 숫자를 절망과 분노의 숫자에 희망의 숫자로 탈바꿈 시켰다. 그가 운영하는 카페(cafe.daum.net/nayuta2001)에는 그의 새로운 삶과 찬불가에 대한 열정이 봄꽃처럼 피어났다. 나유타의 희망, 누구나 마음을 열면 아름다운 꽃이다.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 (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팔각봉축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러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러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